

선교편지 44 호 (12월 21일) 2022년

선교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강창석 선교사
카메룬 Douala
아주 작은 섬김의 삶으로

안식년을 마치면서

선교사에게 안식년은 휴식과 함께 다음 팀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정신 없이 사역으로 바빴던 현장을 떠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역 전반을 점검하고 여러 관계들을 돌아봅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하며 지냈던 시간이었는데 돌아보니 여러 가지 아쉬움과 부족함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팀을 준비하며 선교지에 첫 발을 내딛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 땅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귀를 기울입니다.

반가운 만남

안식년의 꽃은 역시 반가운 파송(후원)교회와의 만남, 가족, 지인과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방문해 예배하며 직접 담임목사님의 축도를 받을 때는 마음속의 뜨거운 감사와 감격과 위로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인들을 만나며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어 더욱 구체적인 기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도 큰 기쁨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 선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식년 중 강화도에서>

한국에서 저희는,

목회자 영성훈련인 바나바 훈련 1년 코스를 잘 마쳤습니다. 사역자의 기본 영성을 다시 새기는 시간이었고 카메룬에서의 목회자 훈련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단 안식관에서 1년을 머물며 저희에게 큰 섬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바나바 훈련 : 인도네시아 >

지금 카메룬에서는,

1) 도파시 교회 : 저희가 카메룬에 처음 갔을 때 고등학생이었던 파트릭이 15년이 지난 지금 도파시 센터교회의 부목사가 되어 오르팡전도사, 이렌전도사와 함께 도파시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방문한 교회 목사님께서 도파시 교회 안부를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 주셨을지를 생각하며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파시센터 성도들>

2) 발리 교회 : 발리 교회가 있는 지역을 캐나다 호텔회사에서 개발하기 위해 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두알라 시에서 무력으로 수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발

리 교회가 완전히 철거되었고 강제로 건물이 파괴되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일로 지역의 주민들이 시위를 하였고 이 경위를 알게 된 정부에서 호텔측과의 협상을 하자 호텔측이 개발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교회에 보상을 해줄 호텔은 떠나고 교회는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연한 가운데에도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땅을 임대해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보상 문제가 잘 진행되고 임시처소가 잘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3) PK17 교회 : 대학생 전도를 사명으로 두알라 대학 부근에 개척된 PK17 교회 대지를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무로 임시처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4) 은도보 교회 : 전주 지방회 후원으로 건축된 교회로 7월 봉헌예배를 드리고 지역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은도보 교회>

5) 코로나 이후의 카메룬 정세 : 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카메룬 역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생필품, 쌀등은 가격이 폭등했고 가스는 구하기 어려워 들어오는 즉시 팔려나가 교회 성도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파인지 두알라에서 50여명의 떼 강도가 무차별 폭행과 탈취를 하는 사건 사고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두알라 시장과 도시 행정담당자들은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오토바이 택시의 통행을 중단시키고 범인들을 잡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더욱 곤고한 가운데 카메룬 두알라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네 번째 팀의 사역들 (2023-2027)

저희는 1월 8일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껏 해온 사역과 더불어 새로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현지 독지가를 통해 기증받은 약 3만평의 땅에 등기 작업이 우선시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꿈꿔 왔던 기독교와 공동체 농장이 실제화 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역을 통해 카메룬 믿음의 지도자를 키워내고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 안식년 기간 후원해 주신 우물 시추와 교회 건축을 합니다. 꼭 필요한 곳이 선정되고 좋은 기술자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도파시교회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가정 회복을 위한 부부 상담 및 교육과 말씀 부흥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식년동안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 숙제를 가지고 기다리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카메룬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카메룬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한 저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46:3) “야곱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하지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나그네 야곱 같은, 선교사의 인생” ‘고센’ 땅과 같은 이방인의 땅이지만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부족한 선교사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